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발전방안

-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Develop the Ecological Tourism for the Activity of Rural Community

김 일 상 (서산시 생태사업소장- 주저자)

이 상 엽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ocial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Nowadays ecovillage mov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movements which seek after alternative societ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of ecological tourism is remarkable and it continues to grow steadily. The characteristic of ecotourists is very different from mass touri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ays to development the programs of ecological tourism, focused on Seosan-city. In order to develop programs of ecological tourism at rural community,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and interviewed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scholars to enhance theirs validity and relevancy.

In order to activate ecological tourism efficiently, attention and supports by local governors are required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s needed. The success of this movement depends not only upon the establishing a "model" of 'green' life-style, but also upon the construction of the network among the local ecovillages. I introduced the case "GEN"(Global Ecovillage Network),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membership, organization, history and the activities, financial problems related to ecovillage network move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other new social movements of "GEN". Ecovillage movement should overcome the too diffusive, self-reliant management, if it wants to be a genuine alternative social movement in the times of environmental crisis.

키워드 : 생태관광, 농촌지역, 생태마을, 서산시, 지방자치단체

Key Words : ecological tourism, rural community, ecovillage, Seosan-city,
local government

I. 서 론

농업환경은 DDA, FTA 등 지속적인 개방압력,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농업연관산업의 급속한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와 인구구조의 변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개발 개념의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방의 과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난 20세기가 이념과 사상의 논쟁을 종식하면서 산업화로 통한 물질문명의 풍요를 구가하는 풍요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과 정신문화의 향상,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산업·문화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광산업이 단일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를 증대시키는 이점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위화감을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된다.

2001년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은 총량 기준으로 연평균 3.4%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농촌관광은 연평균 10.9%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농촌관광 경험자들의 만족도도 8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마을과 민박농가 등에서는 숙박 및 음식물 판매수익, 농산물판매수익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5,117명/년, 총매출액은 67,868 천 원/년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펜션포함)의 평균 방문객수는 275명/년, 총매출액은 5,507천 원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을 경영하는 가구의 농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하인 경우가 48.7%로 가장 높았지만 농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 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농촌관광 수요전망도 밝은 편이어서 체험활동과 농가민박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2011년에는 3.2%인 8,838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을 주는 생태관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의 세기란 과거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개발만능의 「컨셉」(concept)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인간들 삶의 본령으로 끌어들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한 현실에 비취볼 때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로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간의 문화를 체험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변해 가는 가치관을 찾아야 될 것이다.

생태관광의 활성화라는 목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 각계 전문가, 관광산업체 등의 협조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제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Top-down형식으로 수립되어 왔지만 참여정부에서 주창하는 Bottom-up 형식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생태관광이 단순히 우수한 자연적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의 보존 및 복원사례를 교육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제시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로써 생태관광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당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적인(static) 단일 행사나 축제 중심의 틀 속에 머물고 있고, 단순주유형식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을 벗삼아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잠재 방문자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의 결여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보존과 관광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관광이 환경보전과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서산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특히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태분석에서는 천수만이 탐조관광지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의 조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관광시장에서 어떤 집단에 소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기행전의 목표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행전 방문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천수만 철새기행전의 목표시장(target market)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하여 기행전 마케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조사한다.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의 세부요소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기행전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와 만족도, 추후 도입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견조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생태관광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천수만 생태관광 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생태관광 축제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면접 및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지역이 장래 매력적인 생태관광명소로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시적인 관광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점 및 약점과 기회 및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SWOT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국·외 생태관광 개발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내포문화권 생태관광 개발의 준거와 방향을 설정한다. 설정된 준거와 방향을 토대로 생태관광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의 다양성을 꾀하고,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II. 생태관광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생태관광의 필요성

1) 현대인의 여가와 생태관광

현대인의 생활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에 의한 생활양식으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둘째는 여가생활양식이다(박계수, 2005: 105-127). '삶의 질'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현대로 올수록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여가가 인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대중관광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舊관광(old tourism)은 다양한 관광경험이 부족하고, 관광시장에서도 패키지관광상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유명 관광명소를 선호하며, 정적(靜的)인 관광패턴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新관광(new tourism)은 세분화되고 실제적인 관광체험을 추구하고, 기존의 관광시장과는 다른 이색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 및 여행공간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비판적이고 피동적인 舊관광자에서 진일보하여 비판적이며 자유롭고 진취적인 성숙한 新관광자로 탈바꿈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대적인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행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2) 농촌지역 활성화와 생태관광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초기에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성장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지역자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전국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의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개발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개발정책을 유도하고 소득의 적정배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홍기용, 1985). 지역경제효과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국내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설악동지역 부근의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 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전체의 69.8%, 주민소득이 증가되었다가 72.3%,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데 91.8%가 동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광공간의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에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반면 68.8%가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물가인상이 높게 지각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0).

3)도농격차 해소

농촌은 입지적 불리성과 생산성 차이 등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득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민승규, 2007).. 농촌이 경제 성장을 위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 과정의 최대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농촌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을 통한 도농교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도시민 등에 게도 농촌의 쇠퇴 등 현재와 같은 지역격차의 지속은 커다란 부담이 된다. 도농교류는 불균형 성장에 의해 경제적 격차가 확대된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은 개발대상지역의 독특한 환경적 특징을 주요 관광대상으로 한다. 관광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대상의 환경적 특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관광수요시장은 높은 수준의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개발 접근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적 수용력이 강조된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의 기능은 관광자원개발이 개발대상지역의 환경·사회문화·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이다. 관광대상을 효율적으로만 이용하면 대상지역 경제에 지속적으로 편익을 창출할 것이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 파괴보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클 것이다.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의 형평성을 촉진시키고, 고질의 관광체험을 제공할 것이며, 예측목표에 따른 환경의 질 유지가 가능하다.

2. 생태관광의 특성과 기능

1) 생태관광의 개념

생태관광(Ecotourism)은 1965년에 Hetzer가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에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데서 출발하였고, 현재 사용되는 생태관광이란 용어는 1983년 Hector에 의해 만들어졌다(신동일, 2001). 이후 생태관광의 개념은 국제기구, 단체, 학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균형,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자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데에 공통적 인식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생물 다양성 및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유산의 보전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사회의 고용 및 소득의 기회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를 수반하는 전통적인 문화자원과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 감상, 이해를 관광의 주요 활동형태로 하고, 관광목적지를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자연 기반적인 관광 유형이다.

2) 생태관광의 특성

생태관광의 목적과 활동은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 등을 관찰·체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 활동에는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야생동식물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연과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생태관광의 개발 및 관리기법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의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즉, 해방감, 편안함을 추구하는 관광활동과 함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자원소비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관광이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생태관광은 자원중심형(resource-oriented)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즉, 생태관광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일정한 원형이 있다기보다는 관광자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생태관광의 가치와 기능

생태관광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는 크게 환경보전효과, 지역경제적 효과, 환경교육 효과, 주체적인 지역주민참여효과, 특화된 관광자만족효과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문창현, 2006: 69-71).

첫째는 환경보전효과로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개발방식을 지향하고,

관광목적지의 생태적·문화적 환경과 주민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관광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용패턴을 도입하여 생태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에 공헌한다. 둘째, 지역경제적 효과로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익의 보장이 환경보전활동의 동기와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명제에 입각해서,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활동 및 사회구조의 심각한 변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 및 생활복지를 도모하고, 소득 증대와 고용기회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는 환경교육효과로서, 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관광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환경교육 및 해설을 통해 관광자와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제고시키는 기능이다. 넷째, 주체적인 지역주민참여효과로서, 관광목적지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관광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케 하고, 책임 및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생태관광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케 한다. 다섯째는 특화된 관광자만족효과로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지역 탐방이라기보다는 생태관광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체감하며, 비교적 보전상태가 양호한 자연지역의 야생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감상·학습을 증진함으로써 관광자의 자아를 재발견하려는 사회심리학적 가치의 실현이다.

생태관광의 개념적 구조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nature-based tourism),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관광(sustainable-run tourism), 환경보전활동에 경제적 있는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보전을 지지하는 관광(conservation supporting tourism), 환경교육을 통하여 관광자의 환경 가치관을 제고시키는 관광(enviromentally aware tourism)의 4가지 핵심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관광의 위치는 관광세분시장에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생태관광이 자연관광 및 전체 관광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생태관광시장을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관광객과 관광산업체의 책임관광의 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생태관광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관련 실행주체 위주의 지역·국가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행연구의 고찰

현재 국내·외적으로 생태관광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기존의 제 학문 간에 수행된 연구동향은 크게 3가지 방향의 연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창현, 2006: 72-78).

첫 번째 그룹은 여행규모, 동반 유형, 체류기간, 소요경비 등의 인구학적인 측면과 여행동기 및 태도와 같이, 기존의 주류 관광과 구별되는 생태관광자 및 생태관광시장의 관광행태적 속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다(Fennell & Eagles, 1990; Eagles 1992; Weiler & Richins, 1995: 29-36; Diamantis, 1998: 515-517; Hvenegaard & Dearden,

1998: 700-720; Meric & Hunt, 1998: 57-61; Wight, 2001:37-62).

Wight(2001, 37-62)는 북미, 아시아, 호주에서 최근까지 수행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고 생태관광시장의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서, 평균적인 생태관광자의 윤곽을 도출하였다. Fennell and Eagles(1990: 23-34)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을 연구사례로 분석한 논문에서 생태관광자가 주류 관광객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Eagles(1992: 3-7)는 생태관광자를 주류 관광객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여행동기와 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1993~2004년의 기간 동안에 생태관광을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박사학위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71편이 발표되었다. 이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연구실적은 15편으로서(문정희, 1999; 정철, 2001; 이일행, 2003; 이지연, 2003 등), 박사학위논문 2편도 모두 생태관광자의 차별적인 행태적 속성 및 만족도와 여행동기 및 태도를 다루는 논문들이다(강미희, 1999; 이귀옥, 2001). 또한 첫 번째 연구그룹은 그 대부분이 관광경영학과를 비롯한 관광학 관련 계열에서 수행되었던 연구성과물이다. 실제적으로 생태관광 관련의 전반적인 연구를 주고하고 있는 학계는 관광경영학과가 23편, 관광계열이 12편으로 총 35편이고, 조경학에서 16편의 연구논문이 배출되었는데, 거의 관광학계가 중심점이 되어 생태관광의 논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국내의 생태관광자에 관한 연구는 여행동기 및 태도와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외국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행규모, 동반 유형, 체류기간과 소요경비 측면에서는 외국의 연구사례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문숙(1999)은 강화도 장화리를 방문하는 생태관광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생태관광자가 여행기간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주류 관광객보다 더 적은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짧은 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강미희(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행동기 측면에서 국내의 생태관광자집단은 다른 대중관광자나 자연관광자의 여행집단보다도 '휴식 및 도피', '활동', '도전', '지적·미적 가치'에 대한 여행동기가 상대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상지의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태도 성향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생태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의 기획 등의 관광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관광·휴양단지 및 시설구조물의 설계 등과 같은 관광인프라 및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태관광의 개발방안과 추진방향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Fennell and Eagles, 1990: 23-34; Sanson, 1994: 344-354; Ayala, 1996: 54-61; Masberg and Morales, 1999: 289-300; Weaver, 1999: 792-816). 현재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생태관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인 43편의 논문이 두 번째 연구경향에 치중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생태관광단지 설계에 관계되는 작업이므로, 주로 조경학계에서 중심이 되어 이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정연, 1995; 최용은, 1998; 이원희, 1999; 정명렬, 1999; 노두

군, 2004). 박 휘(1999)는 생태관광을 도입하여 동강의 자연환경보존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개발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보존관리계획, 운영관리계획, 생태관광계획, 지역 홍보 및 마케팅계획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번째 연구그룹의 상당수는 생태관광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인 자연생태계보전의 촉진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창출이라는 생태관광의 본질적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설계하기 위한 심각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 그 추진방안도 일반적인 대중관광에서 전개되는 개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 소위 무늬만 생태관광인 식으로 ‘생태’라는 단어를 남용하여 각종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부작용이 횡행하는 현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 번째 연구그룹은 두 번째 연구그룹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태관광개발이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영향 평가와 파급효과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생태관광의 개발방안 및 추진방향 등과 같은 두 번째 연구그룹에 치중된 국내의 연구경향과는 상이하게, 외국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세 번째 연구그룹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Walpole and Goodwin, 2000: 558-576; Lusseau and Higham, 2004: 657-667; Nevin and Gilbert, 2005: 611-622).

또한 국내 연구는 생태관광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바로 구체적인 생태관광명소의 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번째 연구경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정현영, 2002; 설중국, 2004; 이생기, 2004).

또한 세 번째 연구그룹에는 세계의 각 사례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생태관광사업에 대하여 진정한 생태관광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에 대하여 진정한 생태관광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및 그 기준에 의거하여 생태관광의 평가를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Ross and Wall, 1999: 673-682; Deng, King and Bauer, 2002: 422-438). 그러나 최근까지도 다양한 생태관광지의 역할과 유영을 분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표 도출 및 구성상의 난점으로 인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지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략 4편 정도이다. 계룡산 국립공원과 제주도의 오름 등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생태관광의 도입방안과 해설프로그램의 설계 등과 같은 생태관광의 개발방안에 관한 내용이나, 환경교육으로의 활용 측면에서 생태관광자원의 지리적인 분포를 다룬 논문들이다.

Ⅲ. 생태관광의 실태 분석: 서산시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산시 및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자원 및 SWOT 분석

1) 서산시의 일반적 관광자원 및 SWOT 분석

서산시는 한반도의 중서부, 충청남도 북서부, 서해안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오래 전부터 교류가 활발하였고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내륙으로 전파하는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함기선 외, 2006). 서산시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인근에 항포구 등의 경관자원, 천주교성지, 불교자원 등 해양·종교관련 역사문화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서산지역의 지형은 동남부의 가야산지를 제외하면 지역전체가 대체로 50m 이하의 낮은 구릉지 내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산지역은 가로림만과 간월호, 부남호, 항포구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과 함께 다양한 낚시터를 제공하고 있다. 천수만은 충남 서산해안과 섬 아닌 섬 안면도 사이에 형성된 골 깊은 바다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속한다. 천수만의 한반도 서해의 중간에 위치하며,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어 해안선을 타고 이동하는 철새들의 병목지점으로 철새들이 모이고 있다. 이로 인해 천수만에서는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에도 조류관찰이 가능하다. 서산천수만은 1984년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어 4,174ha의 담수호와 10,121ha의 간척지가(농지) 형성되어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조성되어 있다.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동위도의 내륙지방보다 10월부터 3월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1.2℃ 정도 높다. 간월도에서 안면도 방향으로는 서산 B지구 방조제가 있으며, 서산 AB지구 방조제에 의해 형성된 부남호와 간월호 주변은 철새탐조로 각광받고 있다.

서산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SWOT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Strengths)로는 서산시가 서해안의 관광지로 연결되는 관문도시로 성숙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후 서산시 관광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 있고 차별화 된 역사문화와 자연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둘째, 약점(Weaknesses)은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경유형 관광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을 흡입하는 매력요소가 부족하며, 서북부 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청정한 해안관광자원의 매력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회(Opportunities)요인으로는 지역여건상 서해안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환경상 자연·해양·생태와 문화·체험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수도권과 주변 대도시 관광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위협(Threats)요인으로는 태안·홍성·당진의 인근 지역에 경쟁관광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문제 상존하며, 도시관광 육성과 대규모 관광지 개발의 투자재원 확보와 민자유치의 문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 SWOT분석을 통한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 여건

천수만지역의 생태관광적 환경에 대하여 SWOT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강점

첫째, 서산지역은 다양한·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성, 역사성, 향토성을 지니고 지명도 높은 정치적·역사적·종교적인 인문관광 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한 입지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야생생물군집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태적 측면에서는 완벽한 해안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 환경이 극히 양호한 지역이기도 하다(문창현, 2006: 164-196 참조).

셋째, 천수만지역은 전세계 멸종위기상태 및 국제적으로 희귀한 조류종이 최다 분포하고 있고,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의 절반 이상인 200여 종의 월동 서식지 및 이동 경로의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관광명소로서의 기본적인 생태적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서산지역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미지가 여럿 존재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귀중한 지역사회의 장소자산이며,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미리 점하고 있는 셈이다.

(2) 약점

첫째, 천수만지역은 자연생태계의 보전활동에 대한 경제적 개발 압력이 거센 지역이다.

둘째, 천수만이 언론에 유명세를 타면서 급증한 방문객들의 여파로 인해 탐방객들의 탐조활동과 차량 통행에 의한 생태계 교란행위가 현저한 방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서산지역의 인문관광환경은 전통적인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다 보니 관광방식이 생동감과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動的)인 입체 관광형태로 승화되지 못하고, 단지 정적(靜的)인 관람형 위주로 사적지를 단순히 둘러 보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관광농원, 민박·캠핑장, 향토음식점, 지역특산물 판매소, 농가레스토랑 등의 녹색관광과 관련된 관광명소나 농촌체험공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연중 분기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그 시장 차이가 무려 약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관광주기의 편중이 심한 것이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기회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기회요인을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생물종의 다양성과 청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을 기본적인 장소자산(place assets)으로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판촉도구로 활용시켜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전개되는 생태관광의 주요 양상인 탐조관광은 물론이고, 생태군락에 대한 생태탐방도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형태의 생태관광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생태관광자원과 특정한 관심분야의 수요계층을 연계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한 SIT(Special Interest Tourism)시장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 역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천수만지역의 세계적인 생태적 보전가치가 국내·외의 매스컴을 타고 국제사회에까지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면서, 국내·외적인 관심이 천수만에 폭발적으로 집중되었다.

넷째, 테마별로 연계한 관광상품의 기획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적인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적 관광명소와 인문사회적인 관광자원, 또한 전통적 문화 및 민속유산과 현대의 최첨단 기술문명 및 휴양·레저방식이 가미된 인공적인 관광자산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인문사회환경, 전통적 역사·문화요소~인공적 현대문명시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다목적형 관광상품의 기획이나 유연한 관광개발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4) 위협

첫째, 잠재적으로 공간 수요의 증대 및 도시의 확장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둘째, 즉 지역 내의 곳곳에 산재된 미개발된 다양한 잠재적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소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발굴 및 개발능력이 미비한 것은 심각한 제약요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이에 대한 관광투자에 심대한 제약이 뒤따른다.

넷째, 서산지역의 관광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체제형보다는 경유(經由)형 관광지로서 인식하고 있다. 관광명소 개발이 구체적인 실행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경유형 관광지를 숙박 및 체제형 관광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력과 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물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출된 수요를 수용할 만한 관광하드웨어 측면의 미비 문제가 적극적인 관광개발의 추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탐조생태관광의 대두와 천수만의 조류 현황

(1) 탐조생태관광의 대두

2000년도 이전 만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탐조는 주로 조류전문가나 일부 탐조동호인 등을 중심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오거나 한국조류보호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천연기념물과 희귀조를 보존·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가창오리가 연출하는 장엄한 군무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탐조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에서 탐조관광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녹색생태관광개발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문화관광부, 2004). 1999-2004년 동안 실시된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서산 천수만의 간월호는 전체 중수 및 개체수면에서 1위 및 3위, 멸종위기종의 중수 및 개체수면에서 1위 및 2위, 보호종의 중수 및 개체수면에서 4위 및 6위로 그리고 종합순위에서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겨울철새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서산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매년 10월말에서 11월말까지 1달여간 철새기행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하 서산시, 2005 참조). 그 결과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은 이제 서산시민,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외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생태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2) 천수만의 조류 현황

① 천수만 겨울철 조류의 중수 및 개체수

천수만에 도래하는조류는 총 291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기록된 450여 종의 1/2이 넘는 조류가 적어도 한번쯤은 천수만 간척지를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체수에서는 간월호가 평균 46,896개체(24,718~75,858개체)로 부남호 평균

20,006개체(14,264~30728개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간 겨울철에 도래하는 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의 변동을 보면, 두 간척호수 모두 동일하게 종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개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②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결과 천수만 지역의 종수 및 개체수 평균순위

1999년에서 겨울철새 동시센서스가 실시된 전국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 118개 지역에서 6년간 관찰된 조류에 대하여 년도별로 전체 종수 및 개체수와 법적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의 순위를 매겨 평균순위를 계산해 보면, 간월호가 전체 종수 및 개체수가 1위 및 3위, 멸종위기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1위 및 2위,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4위 및 6위로 종합순위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부남호는 전체 종수 및 개체수가 2위 및 7위, 멸종위기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3위 및 4위, 보호종의 종수 및 개체수가 8위 및 7위로 간월호에 이어 종합순위 2위로 나타나 간월호와 부남호를 보유하고 있는 천수만 간척지 일대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이며, 우리나라 겨울철새 도래지 중 가장 중요한 지역임이 밝혀졌다.

③ 천수만 일대 조류의 종구성과 조류의 계절성

천수만 간척호수 일대에 대하여 계절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금류, 섭금류 등 수조류가 79종, 수리류, 올빼미류 등 맹금류가 14종, 산림조류가 주를 이루는 명금류가 44종, 삻꾸기류, 물총새 등 기타조류가 10종으로 총 14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계절이동을 고려하여 구분해 보면, 겨울철새가 32.0% (47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름철새가 26.5% (39종), 텃새가 22.5% (33종), 나그네새가 19.0% (28종)의 순이었다.

④ 천수만 일대의 환경별 번식조류와 법정보호종

환경별로 보면, 간척 눈에서는 장다리물떼새, 쇠뿔부기사촌, 뿔부기, 호사도요 등이, 모래섬에서는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자갈밭에서는 흰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이, 수로변 갈대밭에서는 개개비, 붉은머리오목눈이, 논병아리, 텃불해오라기, 큰텃불해오라기 등이 주로 번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흙 절벽에서는 청호반새와 물총새가, 바위산에서는 뿔종다리가, 목장 주변의 초지에서는 종다리가, 교목림에서는 해오라기,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등 백로류가, 은행나무와 같은 고목에서는 솔부엉이가 단독 혹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천수만 일대에서 최근 기록된 조류 중 법적 보호종은 총 31종이며 그중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I급이 매, 저어새, 황새 등 7종, 멸종위기종II급이 가창오리, 개리, 큰고니, 흑두루미, 뿔부기 등 17종이며, 그리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 원앙, 검은머리물떼새, 재두루미, 솔부엉이, 소쩍새 등 22종이 있다.

2.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참가자에 대한 실증분석

1) 조사설계

2006년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방문객 설문조사 응답자 503명의 인구사회적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인구사회적 현황

분류	구분	빈도(명)	구성비(%)
합 계		503	100.0
거주지역	수도권	262	52.0
	충청권	176	35.0
	호남권	32	6.4
	영남권	27	5.4
	강원/제주권	6	1.2
성 별	남성	263	52.2
	여성	241	47.8
연령	20대 미만	1	2.0
	20대	105	20.8
	30대	224	44.4
	40대	131	26.0
	50대 이상	34	6.7
결혼 여부	결혼	143	28.4
	미혼	361	71.6
소득	100만원 미만	98	19.6
	100만원-199만원	110	22.0
	200만원-229만원	151	30.1
	300만원 이상	142	28.3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36	7.1
	중졸	74	14.7
	고졸	278	55.2
	대졸 이상	116	23.0
직업	회사원	148	29.4
	주부	92	18.3
	공무원	54	10.7
	사업가	52	10.3
	학생	47	9.3
	전문직	29	5.8
	판매/서비스업	19	3.8
	기술자	12	2.4
	도소매업	10	2.0
	농수산업	4	0.8
	관광사업	2	0.4
	기타	34	6.8

2) 생태관광 참가자 행태 분석

(1) 동반자

철새기행전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기행전에 누구와 함께 왔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52.5%,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이 19.7%로 가족과 함께 온 방문객들이 전체의 약 68.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친구와 연인과 함께 온 경우가 전체의 19.7%, 직장/학교/종교/친목단체에서 온 경우가 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동반자 형태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아이를 동반한 가족	264	52.5
친구/연인	99	19.7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79	15.7
직장/학교/종교/친목단체	47	9.3
혼 자	14	2.8
합 계	503	100.0

(2) 방문일정 및 체류계획

방문객들에게 서산지역 방문일정 및 체류 계획을 물어본 결과, 당일 일정으로 현지를 찾았다는 사람들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박2일로 40.5%를 차지했다. 2박3일과 3박 4일상은 각각 6.0%와 1.0%에 그쳤다.

<표 3>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서산 체류일정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당일	264	52.4
1박2일	204	40.5
2박3일	30	6.0
3박4일이상	5	1.0
합 계	503	100.0

(3) 숙박장소

기행전 방문자 중 서산에서 숙박을 할 계획이거나 숙박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숙박장소를 물어본 결과, 콘도미니엄/펜션에 숙박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친구/친지집(21.9%), 여관(13.9%), 관광호텔 (11.6%), 민박(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숙박관광객의 숙박장소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콘도/펜션	100	39.8
친구/친지집	55	21.9
여관/여인숙	35	13.9
관광호텔	29	11.6
기 타	24	9.6
민 박	8	3.2
합 계	251	100.0

(4) 서산 주방문 목적과 주변관광지 방문계획

주방문 목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때문에 서산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9.3%인 반면, 기행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서산을 방문했다는 사람이 60.7%로 오히려 약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서산 방문목적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기행전이 주 방문목적	198	39.3
기행전 외에 다른 목적	306	60.7
합 계	504	100.0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변관광지 방문계획이 있거나 이미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23명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계획이 없거나 주변관광지를 방문하지 않은 응답자는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주변관광지 방문계획

구 분	빈도(명)	구성비(%)
예	423	84.3
아니오	79	15.7
합 계	502	100.0

기행전 방문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미 방문했거나 또는 방문이 계획된 관광지를 조사해 본 결과, 안면도가 77.6%로 가장 높았으며, 간월암으로 54.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번 기행전 방문객 중 30-40% 정도가 안면도에 가는 도중에 기행전을 들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행전 방문자들 중에는 또한 해미읍성(33.5%)이나 마애삼존석불(28.6%), 개심사(22.4%), 보원사지(13.5%)를 방문하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7> 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기방문 또는 방문계획이 있는 관광지(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구성비(%)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마애삼존불	133	28.6	간월도 간월암	252	54.2
개심사	104	22.4	천주교 성지	52	11.2
해미읍성	156	33.5	안면도	361	77.6
보원사지	63	13.5	기타 관광지	30	8.9

(5) 관광정보 취득원

기행전에 대한 정보취득원을 조사한 결과 현수막 (21.9%), 친구/친지(18.7%), 인터넷 (18.1%)이 약 20%대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TV/라디오 11.8%, 신문 5.6%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도 18.7%가 있었다.

<표 8>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에 대한 정보취득원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현수막	110	21.9
기타	94	18.7
친구/친지	91	18.1
인터넷	84	16.7
TV/라디오	59	11.8
신문/잡지	28	5.6
홍보책자	18	3.6
여행사	14	2.8
한국관광공사	4	0.8
합 계	502	100.0

(6) 방문 동기

방문동기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평균 3.86으로 가장 높았고,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가 3.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철새감상과 철새 생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균 3.49로 나타났으며, ‘새와 환경보호의 중요성 이해하려는 목적도’ 평균 3.42에 그쳤다. 한편에서 일상에서의 탈출 목적은 평균 3.45로 다른 동기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9>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방문동기

구 분	평균±표준편차
철새들을 감상하고 철새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3.49±0.89
새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하기 위해서	3.42±0.86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86±0.86
친구/연인/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50±1.04
호기심 때문에	3.38±0.95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65±0.87
판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45±0.96
전 체	3.54±0.52

3) 생태관광 참가자 만족도 분석

(1) 접근성

기행전 방문객들에게 기행전 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3.55점으로 기행전의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0> 행사장 접근성 평가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3.55±0.95

(2) 홍보 안내

방문객들은 기행전의 홍보안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방문객들은 홍보안내의 여러 측면 중 ‘행사장내 안내요원의 현장서비스’ 대해 다른 홍보안내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고(평균 3.73), 행사장 팸플릿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평균3.48). 반면 기행전 방문들은 사전홍보 부분(2.84)과 행사장내 안내시설(3.26)에 대해서는 다른 홍보 및 안내 부분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11> 방문객들의 홍보안내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사전홍보를 통해 기행전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었다.	2.84±1.05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3.26±0.75
행사장내 팸플릿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3.48±0.81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했다.	3.73±1.91
전 체	3.54±0.52

(3) 행사내용 및 시설

방문객들은 천수만 생태관이 재미있고(3.44) 내용이 다양했다(3.29)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지역특산품의 종류의 다양성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각각 평균 2.82, 3.08 3.02).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은 이번 기행전의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했고 새와 사람의 만남이라는 기행전의 주제에 부합하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가라고 응답하는 하는 경향이 있었다(각각 평균2.98, 3.16).

<표 12> 방문객의 기행전 행사내용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천수만 생태관은 재미있었다.	3.44±0.79
천수만 생태관의 내용은 다양했다.	3.29±0.82
장터체험마당의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했다.	2.98±0.91
장터체험마당의 지역특산품은 다양했다.	2.82±0.89
장터체험마당 지역특산품의 품질은 좋았다.	3.08±0.79
장터체험마당 지역특산품의 가격은 적당했다.	3.02±0.80
행사주제(새와 사람의 만남) 부합하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았다.	3.16±2.10
전 체	3.11±0.68

(4) 기행전 기념품

방문객들은 기행전 행사기념품에 대해 비교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행전 방문객들은 ‘기행전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기념품의 품질’,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모든 면에서 있어서 평균 약 2.9점을 주어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13> 방문객의 기념품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했다.	2.81±0.83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았다.	2.97±0.79
기행전관련 기념품의 가격은 적당하다.	2.94±0.78
전 체	2.91±0.70

(5) 음식

방문객들은 기행전 행사장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맛에 대해서도 기념품과 마찬가지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문객들의 기행전 식당 및 음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 종류의 다양

성, 음식 가격의 적정성, 음식의 맛 등 3개 항목 모두 보통을 의미하는 3.0을 넘지 못했다.

<표 14> 방문객의 음식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식당의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다.	2.89±0.83
기행전 식당의 음식 가격이 적당했다.	2.96±0.82
기행전 식당의 음식의 맛이 좋았다.	2.90±0.81
전 체	2.92±0.71

(6) 주변관광지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해 평균 3.51점으로 비교적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5> 방문객의 주변관광지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행사장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3.51±0.91

(7) 편의시설

참가자들이 행사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했다”는 진술에 대해 평균 4.0을 주었다. “벤치나 휴게실과 같은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라는 진술과 “화장실의 청결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각각 3.18점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6> 방문객의 편의시설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했다.	4.00±0.78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었다.	3.13±0.95
화장실이 청결했다.	3.18±1.01
전 체	3.44±0.72

(8) 방역 및 안전

방문객들은 기행전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방역과 소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과 소독이 잘

“있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평균 3.46을 그리고 “조류독감 감염은 걱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평균 3.52점을 부여했다.

<표 17> 방문객의 방역/안전 만족도

구 분	평균±표준편차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과 소독은 잘 되어 있었다.	3.46±0.82
기행전을 통한 조류독감 감염은 걱정되지 않는다.	3.52±0.99
전 체	3.49±0.82

(9)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시설이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행전 참가시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다중 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프로그램은 역시 탐조투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조류전시관, 철새영상관, 새소리동영상관, 조류주제관 순이었다. 방문객들은 기행전에서 생태관에서 전시행사와 철새탐조투어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산시 농수산물 홍보관에서 진행된 솟대만들기, 새모양종이접기, 그림전시회와 행사장에 설치된 무논탐조대도 비교적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나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18>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도예체험	41	8.6
솟대만들기	148	31.0
칼라믹스 만들기	34	7.1
새모양종이접기	114	23.8
서산시 관광기념품 전시관	71	14.9
그림전시회	98	20.5
조류주제관	149	31.2
조류전시관	283	59.2
철새영상관	270	56.5
새소리 동영상관	236	49.4
서산시홍보관	78	16.3
서산시 농수산물 홍보관	79	16.5
무논탐조대	108	22.6
철새탐조투어	287	60.0
기 타	8	1.6

(10) 기행전 전체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방문객들은 비록 지역특산품, 기행전기념품, 음식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기행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평균 3.37), 주변지인들에게 추천할 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평균 3.55).

<표 19> 방문객의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의사

구분	평균±표준편차
기행전 프로그램과 운영 등 전반적으로 기행전에 대해 만족한다.	3.37±0.73
내년에도 이 기행전을 방문하겠다.	3.37±0.86
이 기행전을 친구나 이웃에게 권유하겠다.	3.55±0.81
전 체	3.43±0.70

IV.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발전방향

1. 생태관광 추진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역활성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충실해야 한다.

1) 생태관광지의 적정 수용력 유지

생태관광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자연생태계를 양호하게 보전하면서도, 관광자의 이용만족도를 어느 수준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규모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감안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문창현, 2006).

실제 현장에서 생태관광의 자연탐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야생생태계에 미치는 교란행위와 서식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조류 서식공간 및 생태계 중심지역이나 생태공원 내에서의 자연탐방시설은 결코 방문객의 편의만을 도모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장소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미감을 표현한 생태적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생태관광 대상지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설치기준, 유형, 재료 등에서 가능한 한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2) 참가관광객의 최대만족 유도

생태관광 개발의 최종소비자는 참가관광객이므로 이들에 대한 만족을 최대한으로 유도한다. 편안하고 안락한 관찰 및 학습환경의 조성,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직접체험이라는 생태관광의 참가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보장

생태관광 개발은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이익은 지역주민의 복지로 환원되게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지역산업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적 효용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생계의 터전이 되어 왔던 생계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영농행위와 관행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전통적인 경제적 생활양식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협의체에 위임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 생태관광의 관리 및 운영단계에 소요되는 인력에 지역사회 출신 인적 자원의 고용을 장려하거나, 생태관광으로 인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이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2. 생태체험관광자원의 개발

최근 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생태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관광모자론과 아마추어 관광

체험관광 상품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관광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엄서호, 2007). 우리문화, 즉 생활문화, 창조문화, 역사문화의 모든 부문이 관광이라는 모자를 쓰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 「관광모자론」의 입장이다. 즉, 원래 하고 있는 일을 이미지 제고와 대외접촉 강화의 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체험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광이라는 모자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체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다양성과 정통성 차원에서 외국의 상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상품은, 삶의 현정이 주는 이미지 그 자체를 상품화한 체험상품과 비교할 때 정통성이 부족하므로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교통, 안내 체계 등이 미비되어 있으면 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광인프라 투자는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전

반적인 국가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사리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체험관광 상품개발은 소규모 투자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보다 한국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목적지로서 의외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문화, 그리고 예술과 같은 창조문화 등 모든 문화가 아마추어 관광차원에서 모두 체험상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

2) 품질관광

체험관광은 관광객 수를 중시하는 양적 차원의 대량관광 수단이 아니고 관광객의 만족을 우선하는 질적 차원의 품질관광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품질관광에서의 초점은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객 만족인데, 생태관광은 문화관광과 더불어 품질관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의 만족을 위한 품질관광을 위해서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소재를 활용하여 체험상품화함으로써 그 지역을 방문해야만 그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高價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으므로 품질관광이야말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광객의 체험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영속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엄서호, 2007).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는 두 차원 사이의 균형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전이란 자연환경의 보호와는 다른 의미로 외부에서 인식되고 있는 해당지역 특유의 사회문화적 유산, 삶의 형태, 생활의 질, 이미지, 정체성 등의 보전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단순한 환경론자의 주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나 개발론자의 경제개발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즉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이다.

3. 생태관광의 타깃 설정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은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와 서식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적인 관광자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문창현, 2006:

63-65). 생태관광의 시스템체계는 자연환경적 요소와 인문사회적 요소와 같은 소프트웨어로서의 관광자원과 함께 관광인프라 및 물리적 기반구조인 관광하드웨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연환경적 요소에는 주로 탁월한 자연현상 또는 비범한 자연미와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보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내륙의 산림지대, 호수, 해안,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자연공원이나 생태계보전지구 또는 미개발된 원시림의 야생동·식물의 자연 생태계와 서식공간, 심미적 자연현상 및 경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인문사회적 요소는 주취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및 관습, 향토특산물, 역사적인 가치를 수반하는 선사유적이나 문화유산을 그 소재로 한다. 셋째, 관광하드웨어적 요소에는 관공목적지 접근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및 연계교통수단, 요식·숙박·편의업소, 위락·휴양시설, 향토특산물 판매점이 이에 포함된다.

생태관광상품의 컨셉 기획의 단계에서 현재의 지리적인 관광여건을 바탕으로 생태적 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고, 인문사회환경과 자연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결합되어 포괄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전개해야 한다. 생태적 자연자원을 관광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不可逆) 원칙이 지배하는 환경생태계의 민감한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자원화에 앞서 자연환경이 스스로 자생적인 복원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한계수용능력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생태관광의 구성원 모두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4. 생태관광의 시설/활동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차별화

생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도는, 첫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생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고(환경전략), 둘째, 잘 가꾸진 환경·생태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며(경제·사회전략), 셋째, 서산시만의 개성적이고 매력있는 문화를 계승·창조함으로써(문화전략), 넷째, 궁극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정체성 향상 즉,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 향상과 대내적인 定住性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장소마케팅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관행적 개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잘 가꾼 환경자원을 비롯한 촌락의 경관·역사·민속·정취 등의 요소들을 특성있게 결합하여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케팅의 주체로서 주민의 리더십 확보와 지원자로서의 행정 및 전문가들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주민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관련단체가 지역·마을로 들어가서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창조적인 개발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마을공동체 또는

여러 마을의 연합체가 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생산 및 생활 체험시설을 제공하며, 지역문화를 보전·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모델의 핵심성공요소는 3C 즉, 콘텐츠(contents)와 커뮤니티(community), 수익(commerce)이다. 독특한 시설과 체험, 서비스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도농교류를 통해 방문객을 확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때 마케팅과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추진수단이 된다.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려는 추진 주체의 전략적 판단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관광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여 감동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추진할 경우에는 리더십 개발과 주민참여 및 조직화,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긍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사업자의 열정과 안목을 길러주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생태관광에서의 콘텐츠(contents)는 잘 보전된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시설, 자연과 문화를 느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인정과 감동으로 환대하는 서비스가 핵심 콘텐츠이다. 사업참여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때 차별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주 이용층(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이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켜야 한다. 개발 시 경쟁시설과 상품의 유무, 판로를 충분히 파악하고 시장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 집중 전략 등을 채택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한다. 농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 부족한 일손의 확보, 생산 원가 및 유통비용의 절감 등 경영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생태관광 개발지역은 일반적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이므로 계획수립 시에는 일반관광개발과는 차별화된 원칙과 기술이 필요하다. 즉,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개발의 특징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신동일, 2001). 위탁시설이나 대규모의 집단적 숙박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으며, 환경해설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가장 중심으로 도입된다. 기반시설은 기존의 도로나 등산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발을 최소화한다(제주발전연구원, 2001).

생태관광 활동에는 조류 및 야생동식물 관찰, 사진촬영, 사파리,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프로그램 역시 도입시설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2) 음식체험프로그램 육성

음식문화는 특정분야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관광객들에게는 테마

상품으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 테마별로 그 특징을 부여한 테마여행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식 관련 관광상품은 이벤트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상품의 대중성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순 관람상품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보게 하는 등 체험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음식의 이용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시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음식문화 투어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의 체험과 참여를 얼마나 유도하고 만족시키는가에 달려있다. 향토음식에 대한 종합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개별 관광객 및 가족관광객이 전문안내인의 동행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해야 한다. 국내 타 지역 나아가 세계의 향토음식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축제 관련 행사는 ‘향토음식 재현체험’, ‘향토음식시식’, ‘요리강좌’, ‘지역별 향토음식 강좌’ 등과 같은 철저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 참가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

서산시의 경우 서산꽃게장, 계국지 등을 특화하고, 밀국낙지탕, 세조개, 굴밥, 대하 등의 음식을 인근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선점하도록 한다. 음식체험프로그램, 예를 들어 어리굴젓 담기, 생강한과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향토음식점을 특화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관광홍보차원에서 입체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원한다.

3) 차별화된 기념품

흔히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행을 통해 획득되는 현지 경험을 사후에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방문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서산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테마를 지닌 역사·문화 유적지나 생태관광명소가 관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관광지 내에 있는 기념품이나 향토특산물 판매점에는 딱히 관광명소의 브랜드를 함축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나마 진열되어 있는 관광기념품도 지역 산출품이 아니거나,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형태의 상품이 대부분인데, 차별화된 기념품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적용 가능 체험프로그램(서산시 경우)

서산시에 적용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버건강관광 프로그램

노인산업은 노인건강·장례·노인관광 분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분야 외에는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부족한 상태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인식이 수반될 경우 노인산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 자연조건과 문화자원은 중장년층 이상의 의식에 적합하다. 또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한서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바 민관학이 연계하여 실버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관련 학과로는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의료보장구학과, 방사선학과, 건강관리학과, 치위생학과, 피부미용학과, 자연요양복지전공(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식품생물공학과 등을 들 수 있다. 건강과 내포문화권의 풍부한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자연환경과 장수라는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를 접목한 실버건강증진 관광 프로그램을 상품화하도록 한다.

팔봉면 고과도리 고과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해안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화 군락지로 조성하고 조깅코스, 자전거 도로 등을 개설하여 건강·휴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중왕리 어촌체험 프로그램

지곡면 중왕리에 소재하고 있는 중왕항은 어항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산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4계절 낚시꾼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밀국낙지탕이 유명하고 갯벌 생태체험이 가능한 지역이며, 주변 산성리에 부성사와 부성산성, 대요리에 진충사와 정충신장군 묘, 화천리에 안건기념관 등이 있어 역사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의 접목이 용이한 지역이다. 문제는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경관의 잠재력은 높으나 가로 경관이나 마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다.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주변의 경관,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오학리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해미읍 오학리 지역은 2002년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시범마을로 지정되었으며, 해미인터첸지와 가까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천문관련 체험학습과 철새도래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미향교와 예절교육, 한문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해미읍성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 밤줍기행사 확대 추진, 철새 탐조여행 등 자연문화프로그램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4) 팔봉산 농산촌체험 프로그램

팔봉산의 등산과 연계하여 감자캐기, 왕감자선발대회, 감자품종비교전시회 등 다양한 감자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감자밭을 도시민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영농체험장으로 육성, 팔봉산 등반대회, 가로림만 갯벌체험과 연계, 농산품 직거래 판매 지원 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5) 도비산 산사체험 프로그램

부석면 취평리 일대 도비산은 정상에서 서해바다의 드넓은 간척지가 내려다보이고, 인근 부석사, 동사, 백운사, 수도사 등의 사찰이 있고, 남쪽으로 간월암이 있고, 수변자원으로 봉락저수지와 마룡저수지가 있고, 특산물로 어리굴젓이 있어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의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도비산의 자연경관의 매력도를 살리면서 산악레저스포츠 활동을 도입하여 위락관광지로 육성하고 부석사를 중심으로 사찰관련 프로그램을 도입 산사체험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한다.

(6) 자연사박물관 및 사이버 생태체험관 건립

서산의 자연환경,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서산문화유산답사, 한국의 농경문화, 문화정보DB센터 등 상설전시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이버 생태체험관은 지역의 생태를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신동일, 2001).

(7) 삼길포항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은 국가어항으로 그 세력권이 당진군 장고항까지 미치며,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파도가 잔잔하며, 인근에 대호방조제가 있고, 대산산업단지의 야경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수상스키, 제트보트, 범선 교육스포츠센터 조성, 별장형 스포츠휴양관 건립, 국사봉 드라이브 코스 개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인근 섬을 연결하는 유람선 코스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5. 친절한 안내 및 전문가 양성

1) 친절한안내

관광명소에 배치된 관광가이드는 방문객들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된 관광기반시설도 결국 현장에서 관광가이드들의 친절하고 생생한 관광서비스에 의해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지역이미지와 감동을 유발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

2) 생태관광전문가양성

거시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탁월한 기획·연출력을 겸비하고 관광상품 및 마케팅프로그램의 설계를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할 실정이다. 행정 실무 측면에서도 생태관광 등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관광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관광업무 담당자도 많이 부족

하다. 따라서 학계 및 산업체와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실무자에 대한 위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핵심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6. 주민참여와 생태관광 지역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관광사업의 전개방식에서도 지역주민의 합의와 자발적인 참여 노력은 필히 요구되지만, 생태관광만큼이나 그 사업 성패의 궁극적인 열쇠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드물다(문창현, 2006:290-296). 생태관광 수행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장소자산이 지역사회에 소재한 자연생태계와 서식환경이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모니터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주체가 바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는 생태관광계획 수립의 의사결정과정과 생태관광사업의 운영·관리단계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생태관광을 위해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생태관광 안내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이나 갯벌생태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적인 무농약 유기농업을 도입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밀렵 감시나 생태계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개발 경험이나 노하우가 거의 없는 민간사업자 주도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체가 지역 활성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앞다투어 생태관광을 도입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생태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의 본래 취지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어서,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태관광 성패의 궁극적인 열쇠는 장소자산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노력을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개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생태관광추진협의체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생태관광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생태관광추진협의체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연생태계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보전 노력, 관광가이드로서 방문객 안내 및 자연해설서비스에 참여, 지역주민의 각종 다양한 소득원의 창출 등의 분야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생태관광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생태관광추진협의체는 개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합의를 도출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관리, 규제 대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조직은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다(구승모, 2005). 작은 마을단위마다 필요한 환경적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광산업체, 관광객, 지자체 및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촉진하는데 주요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생태관광 윤리강령 및 지침 설정, 허용변화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관광객 수용력 산정, 방문시기 결정, 생태관광 시설 및 상품 개발, 생태관광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관광 전문가이드 육성, 관광산업체 평가기준 설정 등(김성일, 2002)을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정책만으로 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거버넌스체계는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및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제다(차미숙 외, 2003).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전문가, NGO, 관광산업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학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제3자 파트너십 체제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공동목표의 달성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 부문과 도, 인근 시·군이 통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신동일, 2001).민·관 합동기구인 ‘생태관광협의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의 친환경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생태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증진 방안의 강구
- 생태관광개발 관련 문제 발생시 의견수렴 및 조정
- 생태관광의 홍보 및 생태관광지침과 수칙 등의 제정
- 생태관광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의 강구
- 친환경적 관광기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 생태관광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 기타 지역 생태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 방안 강구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추진팀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산시장이 맡도록 하고, 인근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의 부군수, 환경관련단체 대표, 지역주민대표, 기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심 서산시 부시장이 담당하고, 실무위원으로는 인근 시·군 관광관련 과장, 환경단체간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다.

7. 지역주민의 친환경적인 소득원의 창출

Ceballos-Lascurain이 환경생태계의 보전이 지역주민에게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가치가 아님과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창출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 이래로, 국가, 국제기구, 국제적 포럼, 학자들이 제기한 수많은 생태관광의 개념적 논의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편익의 창출에의 공헌을 생태관광이 수행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태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생태관광은 경제적으로 크게 득이 안 된다는 식의 편견을 버리고, 생태계 보호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의 지역주민에로의 환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크게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창현, 2006: 194, 281-284). 前者는 천수만지역이 각종 규제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계확대와 재산권 행사의 침해 및 제약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 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생계의 터전이 되어 왔던 영농행위와 관행 어업 및 양식업 등 전통적인 경제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後者の 방안에는 첫째, 천수만 중심시설지구의 수산물 판매소 등을 천수만지역에서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품을 홍보 및 직판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먼저 천수만 특산물을 고품질 이미지가 각인된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품질 브랜드화에 성공하면, 동종, 동급의 생산품이라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어 고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천연적인 자연생태계 및 서식환경, 생물 다양성 등의 생태 자연조건이나 청정한 친환경적인 장소성에 바탕을 둔 장소자산은 바로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핵심이 된다.

둘째, 중심시설지구 내에 기념품 판매소, 자전거 대여소, 물품 보관 및 장비 대여소, 휴게 및 편의시설, 각 지구별로 설치되는 간이 자동판매기, 천수만 조망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상의 휴게소를 조성하고, 각종 다양한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협의체에 위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여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부분이 천수만 생태계의 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로 환원될 수 있게 한다. 기타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운영사업이 도입될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천수만 자연생태계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의 보전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방문객 안내 및 환대서비스에 참여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산하 관리·운영계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위원이 상주하고, 입장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천수만 인근 부락마을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생태공원에서

기획·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각 관광사업체의 패키지프로그램에 인근 부락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 및 요식업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관리 및 운영단계에 지역사회 출신 인적 자원의 고용을 장려한다. 또한 각종 직무 적응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전문직 또는 일용직분야에서 고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8.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현재의 지역 간 폐쇄적인 관광행정체계로는 최근의 다목적 관광패턴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가 어렵다(윤도현, 2005: 109-120). 따라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한정된 관광명소의 유형에 대한 상호 보완학을 통해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연계한 관광코스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환경, 생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방향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흐름은 고립에서 연결 그리고 중앙 집중적 접근에서 분산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자연보호에서 과거에는 주로 한 지역의 보전(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지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관심의 초점은 보호지역간의 연결,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적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용어는 고립에서 유기적 연결, 그리고 다양한 생태지역운동을 전지구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Jongman/ Pungetti 2004: 1-2).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논의는 문화적, 행위적 기본양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에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한 문화적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보다 진지한 의사소통과 실천교류를 통해서 접근되어야 하고 바로 이점에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생태관광의 확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주체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흩어져 있는 운동세력들 간의 지원, 협력과 단합 그리고 일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 필요성 이외에도 개별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과 물질적 자원의 동원 또는 공동체의 홍보 및 선전 그리고 생태교육의 수단 등으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생태공동체 네트워크로 GEN(Global Ecovillage Network : 이하 GEN으로 약칭함) 있다. 생태공동체는 1990년대 이래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전국적 네트워크가 급속히 구축되어 왔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는 GEN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GEN은 창립초기부터 전 세계 생태공동체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웹사이트의 개설, 소식지의 발간에서부터 지역적, 국제적 프로

그럼의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EN이 특히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생태관광(Ecotourism), 생활과 학습(Living & Learning) 프로그램, 자문(Consulting),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평가(CSA: Community Sustainability Assessment) 이다.

9. 서산천수만 생태관광 개선방안

1) 천수만 조류의 보존방안

향후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진을 원활히 수행하고 천수만 지역을 중심으로 서산시의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수만의 조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산시, 2005). 기행전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데 해도 정작 철새가 없으면 기행전이니 생태관광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서산시가 향후 사계절 탐조투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여름철새나 도요새 등 나그네새들의 번식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중 조류서식지는 대규모의 인공저수지, 광활한 농경지, 그리고 자지류와 상류의 수변식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조류를 보존하고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서식지의 질을 개선해 주거나 인공서식처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특히, 조류 서식지의 4대 구성 요소인 물, 공간, 먹이, 은신처에 대한 보존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간월호와 부남호는 물이 깊고 대부분이 개활 수면으로 되어 있어 잠수성 조류의 서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면성 오리류에게는 휴식공간 외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민계몽을 통해 유기농법을 유도하고,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요소요소에 중소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갈대, 줄과 같은 수질정화 식물을 이용하여 생태공학적인 처리를 거치도록 한다면 저렴한 경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육상에 형성된 모래밭이나 자갈밭, 그리고 건기에 드러나는 간척호수내의 모래섬은 쇠제비갈매기와 물떼새류의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모래섬을 제방보다 높게 쌓아올려 우기에도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호수내의 수심이 얇은 곳에 새로운 모래섬을 만들어 주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뗏목둥지를 만들어 여기저기 띄어 놓으면 수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다. 농경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수문을 통한 물관리가 가능한 기수 또는 염수 습지를 조성하고, 해수유입과 함께 다양한 무척추동물을 유입시켜 먹이자원을 풍부하게 유지시키며 도요 물떼새류의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관리하면 다양한 도요 물떼새류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 역시 주변에 은폐 관찰사를 설치하면 탐조대상지역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겨울철 간척호수 주변의 농경지를 임대하여 물을 대어주면 수면성오리는 물론 큰고니, 두루미, 도요 물떼새 등을 유치할 수 있어 탐조에 활용할 수 있고 오리류의 호수에의 집중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오리류의 먹이가 되는 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논 갈아엎기를 이듬해 봄까지 연기하여 월동기간 동안 오리류가 낙곡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간척호수 주변 논을 일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벼나 줄, 부들 등 정수식물을 재배함으로써 뜸부기, 호사도요, 장다리물떼새 등의 안전한 번식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 야산에 교목숲을 조성하여 중대백로, 해오라기, 왜가리 등 백로류의 집단번식을 유도한다. 조성시에는 숲의 면적을 5ha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침엽수로 조성한다.

2) 시설 개선

(1) 전시 및 부대행사

기행전위원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쌀이나 사진 달력 이외에 철새기행전 참가의 추억을 회상시켜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세련된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당음식의 맛과 질, 가격과 위생을 지금보다 한 차원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웰빙트렌드에 맞추어 서산의 건강먹거리를 보다 다채롭게 판매해야 할 것이다.

철새기행전 방문객들의 주류가 ‘탐조매니아들’이 아니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30-40대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축제행사장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식당과 기념품 및 특산 판매점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조스탬프 랠리도 탐방객들에게 기행전의 추억을 회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행전을 입소문 내는 좋은 기념품을 될 수 있을 것이다.

(2) 탐조투어

서구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목조 탐조데크 및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갈대로 엮어진 전망대만은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될 수 있을 것이다(서산시, 2005). 그러나 서산시가 앞으로 천수만 지역을 사계절 철새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반영구적인 서구식 탐조데크 및 전망대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개선

(1) 사전탐조교육

탐조는 슬며시 훑추며 노는 탈출형 여가와 달리 아는 만큼 보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목적형 여가이다. 때문에 방문객들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재미있는 새이야기’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실제로 현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류의 생태와 식별요령, 망원경과 단망경의 사용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은 현장에서 탐조의 재미를 만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역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생태와 식별요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세미나가 이루어진 후에 Field Trip으로 탐조투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탐조장비 및 서적 전시회 새를 주제로 한 경연대회

탐조장비 및 서적 전시를 위한 부스를 신설하고, 탐방객이 몰리는 주말을 위주로 새 이름이나 새소리 맞추기 경연대회 그리고 새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

현재 서산 천수만 기행전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생태축제로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위한 이벤트의 부족이다. 다음은 서산시가 새롭게 도입해 볼 만한 가족단위 행사이다.

- ① 철새를 소재로 한 벽화 만들기
- ② 철새를 소재로 한 패밀리 프로그램(미니앨범)
- ③ 서산 건강식단 체험 및 식단 만들기
- ④ 탐조투어 아마추어 해설가(또는 탐조투어 리더) 캠프

4) 생태관광연계코스개발

생태관광 연계코스는 천수만과 각 관광권역의 명소들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방안과 함께, 지리적인 범주를 초월하여 각 권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하나의 투어코스로 다시 결합한 복합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서산시는 서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테마별 코스 3개와 숙박형 코스 5개 등 총 8가지의 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테마별 코스는 역사기행, 철새의 귀향, 그리고 갯벌체험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1박2일 코스 5개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광코스는 실제 코스일정대로 관광일정을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기행전 참가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행사(기행전 포함) 프로그램의 현실화, 다양화와 함께 지역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서산시, 2005). 특히, 서산시의 대표 축제인 기행전의 경우 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광객들이 행사 참가전이나 후에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새기행전과 연계한 다양한 투어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서산시 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서산시내 숙박 관광

객 유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내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서산시내의 동부시장을 수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향수와 추억'을 파는 쇼핑 및 먹거리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행전 행사기간 중 지역 소재지에서 다양한 지역 이벤트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행전과 연계한 서산시 관광코스 개발의 기본 원칙은 재래시장과 시내의 문화행사 그리고 기행전을 실제 실현가능하게 연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역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광부문에서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의 독자적인 차별적 이미지 부각 및 관광수요의 자체적 창출을 기하기 위한 관광자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즉,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는 소위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90년대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광형태가 생태관광이며, 이는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광개발을 적절하게 결합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보존과 관광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태관광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생태관광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서산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특히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중심으로 실태분석과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태분석에서는 천수만이 탐조관광지로서 가지는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의 조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관광시장에서 어떤 집단에 소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기행전의 목표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행전 방문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천수만 철새기행전의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하여 기행전 마케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방문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기행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의 세부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기행전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와 만족도, 추후 도입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견조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생태관광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천수

만 생태관광 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생태관광 축제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타 지역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척도 구축과 관광객 유형별 비교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기대 소성관광종합연구소. (2001). 경기도 양수려 일대 생태/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 및 잠재방문객 조사 보고서.
- 광주비엔날레 사무처. (1996). 「결과보고서」.
- 구승모. (2005). 지역혁신체계와 생태관광의 과제.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월인.
- 국립환경과학원. (2004). 「'99~04'년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종합보고서」.
- 김규호. (1992).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방향. 「관광연구」 영남관광학회. 2. 59-74.
- 김성일. (2002). 생태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세계적 동향. 2002 세계 생태관광의 해 기념 포럼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성진. (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용우. (2002) 공동체운동의 현실과 전망. 계간 「사회비평」, 2002 봄호.
- 김정연. (1995). 생태관광의 국립공원에의 도입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해창. (2003).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에너지자립·생태도시로 가는 길, 이후.
- 김홍운. (1994). 한국의 국민관광 증진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한양대 관광연구소. VI. 1-27.
- 노두군. (2004). 영산강 유역의 문화유적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개발전략: 함평군 사포강 유역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정희. (1999). 생태관광에 대한 관광성향과 태도에 관한연구: 서울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창현. (2006). 순천만지역의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199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밀리암 안센-버베크. (1996. 9). 21세기의 문화관광. 「관광연구논총」 한국관광공사. 96-3. 17-27.
- 박 휘. (1999). 생태관광 도입을 통한 동강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계수. (2005). 생태공동체의 일과 여가. 「새로운 눈으로 보는 독일 생태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월인.
- 박광국. (1997). 「문화정책 집행연구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학제간 연구보고서.
- 박광국·최상일·주효진. (1999). 지역문화정책 영향요인 평가.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3-90.

- 박석희. (1990). 「신관광자원론」 명보문화사.
- 박혜자·이기혁. (1998). 도시문화정책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93.
- 박호표. (1997). 「관광학의 이해」. 학현사.
- 서산시. (2005). 2005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서산시보고서.
- 설종국. (2004). 삭도시설(케이블카)과 부대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원 생산기술공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대현. (1995). 관광개발과 문화 그리고 마케팅적 사고. 김사현 외.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 신동일. (2001). 「제주형 생태관광 개발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야은숙. (1993).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영철. (1991).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서호, 노영희. (2001). 그린투어리즘 실현을 위한 체험상품 개발방안. 「관광농업연구」, 8권 2호
- 엄서호, 박창규. (2000). 관광대안으로서 생태관광의 적용(An application of ecotourism as an alternative: center on Dong-river region). 경기관광연구(경기대학교 소성관광종합연구소), 권4호.
- 엄서호, 서천범. (2002). 「레저산업론」. 서울: 학현사.
- 엄서호. (2003). 관광레저기획론. 경기대 관광학부 강의교재.
- 엄서호. (2007).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어메니티 상품화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제공자료.
- 엄서호. (2000). 관광명소 만들기: 이론과 실제. 「관광농업연구」. 한국관광농업학회, 7권 1호.
- 유정길. (2001) 생태적 대안사회와 공동체운동 -경제중심에서 생태중심사회로-. 「1기 열린사회생태학교 자료집」.
- 윤도현. (2004). 생태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 국중광·박설호 엮음. 「생태위기와 독일 생태공동체」. 한신대출판부: 159-195.
- 윤도현. (2005). 생태공동체 네트워크 필요성과 문제점. 「한국비교정부학보」, 제9권 제1호.
- 윤형근. (2002). 생활공동체 대안운동. 시민의 신문 2002/08/19일자.
- 이강욱·최승묵. (2003).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귀옥. (2001). 생태관광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관광활동 참여와 만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근행. (2003). 대안공동체 운동의 오늘과 내일. 「비평」, 12호: 42-65.
- 이생기. (2004). 해양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 종달리 체험어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1999). 강화도 장화리 갯벌 생태관광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일행. (2003). 서해안 갯벌 생태관광 이용자의 태도와 관광활동에 관한 연구: 안면도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장춘. (1995. 5). 경기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관협」 한국관광협회.
- 이지연. (2003). 생태관광지의 유형별 관광객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

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충기. (2003). 『관광응용경제학』. 일신사.
- 이태중. (1997). 경주지역 발전지향적 관광자치. 「경주대 논문집」, 9.
- 이태중. (2002).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 장병권. (1991). 정부관광행정기구(NTA)의 기능변화와 향후의 역할. 「관광학연구」, 15. 199-224.
- 정 철. (2001). 대중관광객과의 배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동기, 체험, 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명렬. (1999). 갯벌의 생태관광지개발에 관한 연구: 강화 석모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2). 생태관광의 영향 지각과 주민 참여 간의 관계: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홍익. (1996). 지방문화정책의 변화와 진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0회 국가정책세미나」.
- 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 협. (1996). 정부의 문화개발정책. 백완기·신유근 등. 「문화와 국가경쟁력」 박영사. 1-26.
- 최승담. (1995). 지역관광개발의 실패와 편협한 사고. 김사현 등.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33-163.
- 최승담. (1996). 문화관광과 지역발전: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96 지역문화행정전문가대회 발표논문집(문화체육부 주최)」. 59-66.
- 최용은. (1998).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 실천방안: 계룡산 국립공원을 사례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종원. (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173-206.
- 프란츠 알트, 박진희 역. (2004). 「생태적 경제기적」. 양문출판사. 원제: Alt, Franz. (1997). *Das Oekologische Wirtschaftswunder*. Berlin.
- 한국관광공사. (1995). 「국내문화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 한국관광공사서남지사. (2004). 『해남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 한국은행. (2001). 『199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 한국은행. (2003). 『2000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환경부. (2004). 「2004 환경백서」.
-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황대권. (2004). 생태공동체와 한국사회운동. 「비평」, 12호: 98-125.
- 황향미. (1999). 「문화예술행정 공무원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TO. (1996). 여행업체와 관광업체를 위한 의제21.
- Al-Sayed, M. and A. Al-Langawi. (2003). Biological resources conservation through eco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Arid Environments*, 54(1).
- Arian, E. (1989). *The Unfulfilled Promis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Ayala, H. (1996). Resort ecotourism: a master plan for experience management. *The*

-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37(5).
- Bardach, E. (1977). *The Implementation Game*. Cambridge, Mass: MIT Press.
- Barrett, S. & Fudge, C.(eds.). (1981). *Policy and Action*. New York: Methuen.
- Berman, P. (1978). The Study of Macro and Micro 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7. 157-184.
- Bookchin, Murray. (1990). *Remaking Society: Pathways to a Green Future*. Boston(Mass.): South End Press. .
- Brickwedde, Peters(Hrsg.). (2002). *Umweltkommunikation -vom Wissen zum Handeln-*. Berlin.
- Butler,R.W.(1998).,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Hall.C.M. and Alan A.Lew(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 Cargo, R. (1995). Cultural Policy in the Era of Shrinking Government. *Policy Studies Review*, 14: 215-224.
- Carlucci, C. (1990). Acquisition the Missing Link in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In Palumbo, Dennis J. & Calista, Donald J.(ed.),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NY: Greenwood Press.
- Davis, T. & Mason, C. (1982). Gazing up at the Bottom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0-2.
- Deng, J, King, B.and T. Bauer. (2002). Evaluation natural attractions fo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2).
- Easton, D. (1969).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 1051-1061.
- Elmore, R. (1985). Forward and Backward Mapping. In Kenneth Hanf & Theo A. J. Toonen(ed.). *Policy Implementation in Federal and Unitary System*, Dordrecht, Netherlan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Fennell, David A.(1999), *Ecotourism: 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Gee, Chuck Y. & Eduardo Fayos-Sola(eds.). (1997). *International Tourism: A Global Perspective*. Madrid: WTO.
- Goodman, Merry E. (1967). *The Individual and Culture*. Homewood, Ill.: Dorsey.
- Gunn, L. (1980). Implementation. In Implementation in Public Policy seminar papers, 1978-79, Younis, T.(ed.), Glasgow College, Glasgow.
- Hann, Gerhard. (2002). Umweltbildungseinrichtungen in Deutschland Themen und Trends. in: Brickwedde, Peters(Hrsg.), *Umweltkommunikation -vom Wissen zum Handeln-*. Berlin: 213-223
- Hay, Peter. (2002). *Main Currents in Western Environmental Though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ecl, H. (1972). Review Articl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
- Hewison, R. (1987). *The Heritage Industry*. London: Methuen.
- Hood, C. (1976). *The Limit of Administration*. London: Wiley & Sons, Inc.
- Jenkins, W. (1978). *Policy Analysis*. Martin Robertson, London.
- Jongman, Rob & Pungetti, Gloria(ed.). (2004). *Ecological Networks and Greenways: Concept, Design*. Implem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ten, David C. & Rudi Klauss(eds.). (1984). *People-Centered Development*.

- West Hartford, Connecticut: Kumarian Press.
- Lee, D. N. and D. J. Snepenger. (1992). An ecotourism assessment of Tortuguero, Costa Ric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2).
- Love, J. (1991). Sorting Out Our Role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21: 215-226.
- Lowi, T.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298-310.
- Lusseau, D. and J. E. S. Higham. (2004). Managing the impacts of dolphin-based tourism through the definition of critical habitats: the case of bottlenose dolphins(*Tursiops* spp.). In *Doubtful Sound,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25(6).
- Masberg, B. A. and N. Morales. (1999). A case analysis of strategies in ecotourism development. *Aquatic Ecosystem Health and Management*, 2(3).
- Mazmanian, D. & Sabatier, P. (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Glenview, III: Scott, Foresman.
- Michelsen, Gerd. (2002). Was ist das Besondere an der Kommunikation ueber Umweltthemen? In: Brickwedde, Peters(Hrsg.). *Umweltkommunikation -vom Wissen zum Handeln-*. Berlin: 31-46.
- Nevin, O. T. and B. K. Gilbert. (2005). Perceived risk, displacement and refuging in brown bears: positive impacts of ecotourism?. *Biological Conservation*, 121(4).
- O'Toole, L. & Montjoy, R. (1984). Interorganiz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5). 491-503.
- Palumbo. D. & Donald J. C.(eds). (1990). *Implementation and Policy Process: Opening up the Black Box*. New York: Greenwood Press.
- Pankratz, D. & Morris, V. (1990). *The Future of the Arts: Public Policy and Arts Research*, NY: Praeger.
- Peters, Volker/Martin Stengel. (2004). *Eurotopia: Gemeinschaften und Ökodörfer in Europa*.
- Poon, Auliana. (1994). The 'New Tourism' Revolution. *Tourism Management*. 15(2). 91-92.
- Porter, L. & Lawler, E. (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II: Richard D. Irwin.
- Pressman, J. & Wildavsky, A. (1973).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s, S. & Wall, G. (1999). Eco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20 (1)
- Ross, S. and G. Wall. (1999). Evaluation ecotourism: the case of North Sulawesi, Indonesia. *Tourism Management*, 20(6).
- Sabatier, P. (1986).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Journal of Public Policy*. 6(1).
- Sadler, B.(1990). Sustainable development, northern realities and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nservation strategie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northern conservation strategies*. Calgary Alberta: University of Calgary Press.

- Sanson. (1994). An ecotourism case study in Sub-Antarctic Island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2).
- Wallace, G. N. and S. M. Pierce. (1996). An evaluation of ecotourism in Amazonas, Brazi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4).
- Walpole, M. J. and H. J. Goodwin. (2000). Local economic impacts of dragon tourism in Indones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 Weatherley, R. & Lipsky, M. (1977). Street Level Bureaucrat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Implementating Special Education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2.
- Weaver, D.B. (1999). Magnitude of ecotourism in Costa Rica and Keny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 Westermann, Udo. (2002). Kommunikation durch Vernetzung - welche Erfahrungen machte texweb.de? In: Brickwedde, Peters(Hrsg.), *Umweltkommunikation - vom Wissen zum Handeln*-. Berlin: 193-208
- Winter, S. (1990). Integrating Implementation Research. In Palumbo, Dennis J. & Calista, Donald J(eds.),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19-38.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Wood, Megan Epler. (2002). *Ecotourism: principles, practices & policies for sustainability*, UNEP.
- Younis, T. (1990). *Implementation in Public Policy*.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 <http://myhome.netsgo.com/ecotour>
- <http://www.parks.seoul.kr/kildong>
- <http://www.inabi.or.kr>
- http://www.firefly.or.kr/2001_muju70/main.asp
- <http://www.world-tourism.org/sustainable/IYE-Main-Menu.htm>
- <http://www.twinside.org.sg/title/iyeh.htm>
- http://www.ecoturismo-ecuador.com/Ecotourism_year.html
- <http://www.hausenhof.de/>
- <http://www.la21.or.kr/>
- <http://www.lebensgarten.de/wirueberuns.htm>
- <http://www.pcbnd.go.kr/>
- <http://www.pcsd.go.kr/>
- <http://www.suchthilfe.org/index.php>
- <http://www.susi-projekt.de/>
- http://www.world-tourism_sustainable.html
- <http://www.zwoelfstaemme.de/gemeinschaftsklosterzimmern.htm>
- <http://www.ecovillage.org>